

# 자가격리자 긴급 구호물품 지원 ‘내 나무 갖기’로 우울감 극복

### 무주군보건의료원, 전담공무원 통해 생필품 신속 전달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필품키트(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증가가 예상되면서 격리이탈과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긴급 구호물품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로 부터 자가격리자용 구호물품이 지원이 중단되면서 무주군보건의료원의 발빠른 대응으로 긴급 구호물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보관과 조리가 용이한 식품류인 조미김을 비롯한 초코파이, 통조림 등 6종의 식품을 확보하고 전담공무원을 통한 생필품(구호물품) 배부에 나서고 있다.

전담공무원 이 모 직원은 “생필품을 전달 받은 자가격리자가 너무 기쁨과 감사의 표정을 지어 뿌듯했다”며 “2주간 격리기간 동안 아무런 탈없이 극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전담공무원을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필품키트(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통해 7월 22일 현재 257명 자가격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자가격리에 따른 부담을 함께 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김미화 팀

장은 “긴급구호물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배부해 자가격리 주민들이 2주 동안 잘 견디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특별점검

### 무주군, 불법촬영 예방·근절 위한 캠페인 병행

무주군이 주민과 방문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주군 환경위생과 담당 공무원과 각 시설 관리 담당자, 무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담당 경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관내 군 청사를 비롯한 반디랜드, 예체문화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26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종합복지

관과 읍·면 시장을 비롯해 구천동관광특구 다목적광장 등 주요 관광지 50여 곳과 관내 터미널,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 34개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렌즈형(카메라 렌즈를 찾아내는 방식)·전파형(렌즈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방식)·영상형(송출내용을 육안으로 확인) 탐지장비를 이용해 출입문과 잠금장치, 조명, 콘센트 등 소형 카메라가 주로 설

치되는 곳을 점검하며 공공시설 화장실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비상벨) 작동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불법 촬영기기 발견 시에는 현장 보존 후 무주경찰서에 신고하고 의심 흔적(흄집, 구멍)이 있는 경우엔 화장실 철치·관리자에게 신속한 보수요청을 할 계획이다.

공공시설 및 주요관광지 화장실 점검에서는 불법 촬영기기, 의심흔적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감동필 과장은 “주민과 휴가철 방문객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을 중심으로 점검에 주력하고,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운영 ‘우수’

진안군은 전라북도에서 주관한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활성화 운영 평가에서 분야별 고른 점수를 얻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행복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매니저의 활동 등 사업취지를 잘 살린 우수프로그램 운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도시 인센티브 500만원

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도움으로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해 와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군은 지역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

장과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해 현재 총 11개 읍·면 평생학습기관에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학습에 대한 의지와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룬 것이다”며 “군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행복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학습공동체 육성을 위해 평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원장 유봉옥)는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 우울증 대상자들과 함께 ‘우울감 제로(zero) 자신감 업(up)’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 나무 갖기’ 사업을 실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40여명은 치매정신종합센터 옆 화단에 직접 블루베리나무를 식재하고 가꾸며 자신만의 나무를 키웠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가꾼 40그루의 블루베리 나무에서 자란 열매를 맛보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우울감을 극복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

나 블루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 운영 시 봉선화, 접시꽃 등 다양한 꽃과 식물들을 심어 회원들의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식물을 가꾸는 것은 자신이 주체적으로 꽃과 나무를 돌보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가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우울증 치유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 및 우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350-2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귀농·귀촌인 대상 원예관리사 자격증반 교육

무주군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원예관리사 자격증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귀농귀촌인의 소득기반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인 창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무주지역에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은 귀농귀촌한 지역민 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총10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다. 전북대 생태조경디자인과 김혜란 교수가 강사로 초빙된다.

적성면 과목리 치목마을 꽃피는 산골농원에 마련된 창업교육은 원예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24일 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각각 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테라리움, 허브식물, 음식식물, 야생화 등에 대한 이론 교육으로 이뤄지며, 허브식물 종류 및 재배요령과 활용, 나만의 허브미니 정원만들기, 꽃꽂이의 기본과 활용, 야생화 모듬심기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사랑장학재단·마이산탐사감룡장학회, 정기후원 협약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23일 오전 10시 30분 진안문화의 집에서 마이산탐사감룡장학회(이사장 청과 진성성)와 정기후원 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마이산탐사감룡장학회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진성성 및 장학재단의 뜻을 담아 열리게 됐다.

진성성님은 협약식에서 “미래세대 장학지원사업을 5년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일시적인 금전적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꾸준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진성성님과 진안사랑장학재단이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후원금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한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이어 마이산탐사감룡장학회(센터장 최주연)가 주관한 ‘제8회 마이산탐사 감룡장학회’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총 23명의 장학생에게 810만원이 전달된 이번 전달식은 진안군 자원봉사자의 자녀, 손주 등이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대상자는 관내 23개 자원봉사단체 및 협약기관에 의해 추천, 선발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산림조합, 선도산림경영단지 협동조합 설립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혜석)은 지난 23일 산주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산림조합이 주도적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운영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및 산주가 주된 운영체로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지내에서 재배, 생산한 임산물을 산림조합의 유통망과 연계해 숲이 행여주는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중이다.

전혜석 조합장은 “지역주민 및 산주들이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과 창업을 통한 융복합산업에 진출함으로써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안전한 상하수도 운영 위한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지난 23일 관내 상하수도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상하수도 운영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진안군 상하수도 대행업체인 태일개발 등 9개 업체와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상하수도 긴급복구 및 누수 탐사 등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 유의 및 준수 사항에 대한 내용 전달 및 의견 청취 시간을 함께 가졌다.

간담회의 주요 전달사항으로는 ▲상하수도 공사 중 공사자재 적함성 및 준수사항 이행 ▲단수 시 신속한 응급 복구 실시로 주민들의 먹는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작업 시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주민홍보 신속히 실시 ▲급수공사 추진 시 지역 주민과 사전설명 및 회의 개최 ▲공사 후 신속한 포장 복구로 주민불편 최소화 등이 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상하수도 공사 감독으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